

브랜드는 디바이스, ODM은 기술... K-뷰티 주도권 경쟁

에이피알, 하반기 신제품 출시 예정
아모레, 삼성 등과 협업해 기술 확보
코스맥스, 한·일 대학과 연구 협약

K뷰티 산업 전반에서 '뷰티 디바이스'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뷰티 업계에서 대형 브랜드 기업은 물론 신생 기업까지 '뷰티 디바이스'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화장품 제조 기업까지 기술력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부문에서 중장기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올해 하반기 국내에서 에너지 기반 디바이스(EBD) 신제품 1~2개를 출시할 계획이다. 뷰티테크 연구 개발부터 자체 생산까지 밸류체인을 내재화한 데 이어 제품군을 기능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낸다는 복안이다. 해당 신제품은 항노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7년 말~2028년 초에는 PDRN 소재를 활용한 인제터블 제품을 선보인다는 목표다. 의료기기 4등급 수준으로 인증 및 인허가를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현재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K뷰티테크'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앞서 만능형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 고주파 홈뷰티 디바이스 '울트라 톤 40.68', 고강도집속포음과 제품 '하이 포커스 샷' 등으로 제품군을 추가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뷰티 디바이스 제품 매출만 전년 대비 30% 늘어 4069억원을 올렸다.

에이피알 측은 "고효능 스킨케어 브랜드인 메디큐브의 제품과 독자 기술을 집약해 다각화한 뷰티 디바이스의 시너지가 나타나면서 동반 성장이 실현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도 혁신 기술 개발과 함께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메이크온' 사업을 본격화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메이크온을 재단장하며 신제품으로 스킨라이트 테라피 3S, 켈 소노 테라피 릴리프, 온페이스 LED 마스크 등을 연달아 내놓았다.

이어 스킨케어뿐 아니라 메이크업, 헤어 등으로 다양한 웰니스 영역에서 브랜드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삼성전자 등과 협업하는 등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는 '인공지능(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과 'AI 뷰티 미러'를 소개했다. 해당 기술들은 카메라 기반 광학 진단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피부 모공, 홍반, 색소, 주름 상태 등을 정밀 분석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역노화 원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홀리스틱 롱제비티 솔루션을 구축해 글로벌 뷰티 및 웰니스 산업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코스피 상장으로 외형 성장을 이룬 신생 뷰티 기업 달바도 뷰티 디바이스 경쟁에 합류한다.

달바는 지난해 3분기부터 상장 후 성장 전략으로 뷰티 디바이스 제품군을 육성하고 있다. 기존 주력 제품인 미스트 등에서 성장동력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달바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홈뷰티기기 사업 매출도 키웠다.

이처럼 뷰티 브랜드 기업들이 뷰티 디바이스에 주력하자, 화장품 제조업체의 '뷰티 디바이스' 기술력도 K뷰티 위상을 높일 것으로 주목받는다.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콜마는 최근 '스카 뷰티

디바이스' 기술을 공개한 바 있다.

스카 뷰티 디바이스는 세계 최초 원스톱 통합형 기술이다. 상처 치료와 메이크업을 한 기기로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통해 상처를 가렸다면 해당 기술은 10분만에 치료와 미용을 동시에 구현한다.

코스맥스도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공략한다.

코스맥스는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서울대학교 및 일본 도쿄대학교와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3자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공동 연구는 의료용 시술 원리를 화장품 부문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장품의 유효성분 흡수를 돕는 피부 전달체, 뷰티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신규 소재 등을 개발한다.

코스맥스가 이번 프로젝트 설계 전반과 스마트 전달체 상용화 전략을 맡고, 도쿄대와 서울대가 환경 반응성 스마트 전달체의 설계, 표면 개질, 개발을 담당한다.

코스맥스 측은 "K뷰티 연구개발 노하우를 쏟아 왔다"며 "화장품에 뷰티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스마트 코스메틱'으로 글로벌 고객에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달달 바삭... 카페도 '두바이st 음료' 붐물

투썸, 모카·웨이크 형태 2종 판매
스타벅스, 미국서 말차 더해 선출시

두바이식 디저트 열풍이 이어지면서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관련 콘셉트 음료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고소하고 달콤한 풍미에 바삭한 카다이프 식감을 더한 '두바이스타일' 디저트를 음료 형태로 재해석해 소비자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20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두바이스타일 초콜릿 음료 2종 판매를 시작했다. 신제품은 '피스타치오 초콜릿 모카'와 '피스타치오 초콜릿 젤라또 웨이크'다. 모카 제품은 진한 커피 베이스 위에 피스타치오 크림과 초코셀, 카다이프를 얹었고, 웨이크는 피스타치오 초콜릿 베이스에 초콜릿 젤라또와 카다이프를 더해 식감과 풍미를 강조했다.



스타벅스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기를 끈 두바이 초콜릿 음료를 출시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투썸플레이스는 신제품 출시 배경에 대해 기존 두바이 콘셉트 디저트 '두초생 미니' 흥행을 꼽았다. 이 제품은 지난 1월 사전예약에 약 13만명이 몰리며 5분 만에 완판된 바 있다.

앞서 스타벅스도 이달 11일 두바이 콘셉트 음료 2종을 국내에 선보였다. 해당 메뉴는 북미에서 먼저 출시돼 인기를 얻은 제품으로, '아이스 두바이 초콜릿 모카'와 '아이스 두바이 초콜릿 말

차'로 구성됐다. 스타벅스는 해외 판매 제품을 국내에도 선보여 달라는 고객 요청이 이어지자 동일 레시피 도입을 결정했다.

모카는 에스프레소와 초콜릿 소스 조합 위에 피스타치오 크림 콜드폼을 올렸으며, 말차 음료는 피스타치오 소스와 말차 풍미에 초콜릿 크림 콜드폼을 더한 논커피 메뉴다.

파스쿠찌 역시 지난 9일 두바이스타일 시즌 음료 '두바이st 딥초코 라떼'를 출시했다. 진한 초콜릿 음료에 쫄득한 피스타치오 크림과 바삭하게 구운 카다이프 토핑을 올린 것이 특징이며, 해당 제품은 4월 말까지 한정 판매된다.

업계 관계자는 익숙한 초콜릿 풍미에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식감을 더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경산업, 차병원과 피부 연구 학술지 게재

미생물별 피부 장벽 반응 분석

애경산업이 차병원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피부 장벽 기능 영향 규명' 연구성과를 대한피부과학회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3D 인공피부 모델에서 미생물별 피부 장벽 반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피부 장벽이 손상된 인공피부 환경을 구현하고 피부 마이크로바이옴과 피부 장벽 간 상호 작용을 탐색했다. 피부 상재 미생물인 황색포도상구균, 스타필로코쿠스 호미니스, 큐티바테리움 아크네가 피부 장벽 관련 단백질 발현과 지질

합성에 미치는 영향, 피부 항상성 유지 기작 등에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특히 피부 가려움증, 여드름, 트러블 등과 관련해 피부 회복 및 손상 방어에 유의미한 소재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애경산업은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소비자 피부 고민에 적합한 스킨케어 제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애경산업 뷰티융합연구팀과 차병원 피부과 신경우 교수 연구팀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국책 과제를 수행해 왔다. 본 연구도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해 이뤄졌다.

/이청하 기자

LG화학, 두경부암 신약 임상3상 지속

적절 투여 용량 20mg/kg 선정

LG화학은 미국 자회사 아베오가 항암제 후보물질 '파이클라투주맙'의 적절 투여 용량을 최대 함량인 20mg/kg으로 최종 선정하고 임상3상을 지속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임상 진행 단계에서 회사와 독립적으로 맹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DMC)'가 파이클라투주맙 임상 3상(FIERCE-HN)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2개의 시험 용량 중 최대 함량인 20mg/kg을 최종 선정하고 임상시험을 이어갈 것을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파이클라투주맙은 종양 성장과 전이에 관여하는 간세포 성장인자(HGF)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을 지닌 단일클론 항체 기반 표적항암제다.

FIERCE-HN 연구는 백금 기반 항

암화학요법과 면역관문억제제를 단일요법으로 순차적 투약했거나 병용 투약했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음성인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파이클라투주맙 및 세톡시맙 병용요법과 위약 및 세톡시맙 병용요법을 비교 평가한다.

최소 410명에서 최대 500명을 모집해 치료 시작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인 전체 생존기간(OS) 등을 살펴볼 계획이며 현재 한국, 미국, 유럽 등 다국가에서 시험자를 기 계획한대로 모집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조아제약, 안전성 최고등급 소재 적용

조아제약이 특허받은 용기 조아세피지 앰플을 적용한 '헤파토스 시럽(사진)'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아세피지 앰플은 미국 약전(USP)에서 인증한 안전성 최고 등급 소재를 적용한 용기다. 인체 공학적 설계로 국내 특허를 취득하고 미국, 유럽, 일본, 베트남 등 해외 30개 국가에서도 특허 등록을 마쳤다. 단일 소재를 사용해 분리 배출과 재활용까지 가능한 친환경 소재이기도 하다. 국가공인시험기관 코티에서 환경호르몬 불검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신뢰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헤파토스시럽은 일반의약품으로 아르기닌, 베타인, 구연산 세 가지 성분의 상승 효과가 간 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을 개선해 준다. 액상 제형이 체내에 신속하게 흡수돼 간의 에너지 합성, 해독 등에 빠르게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